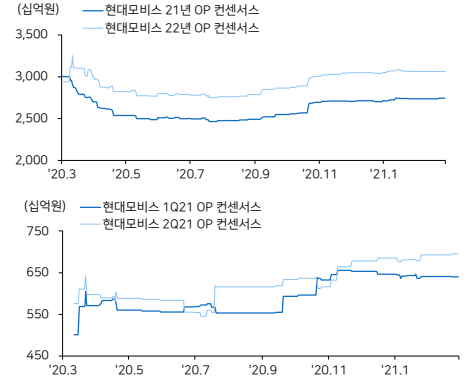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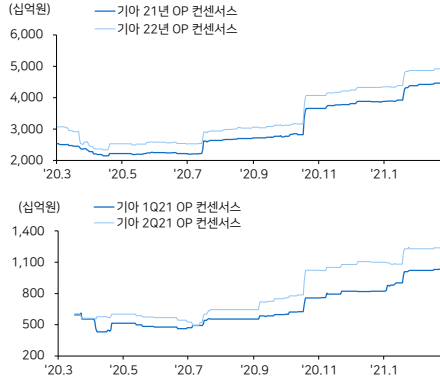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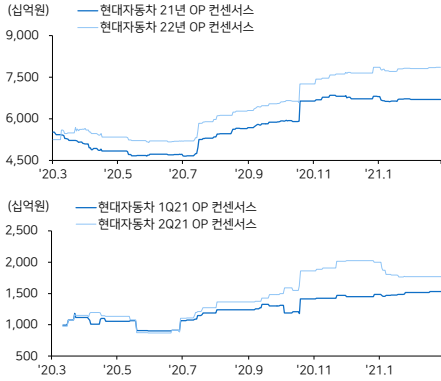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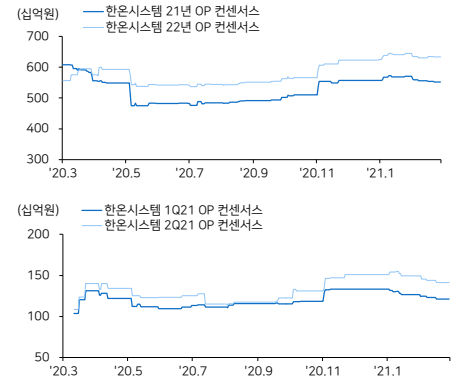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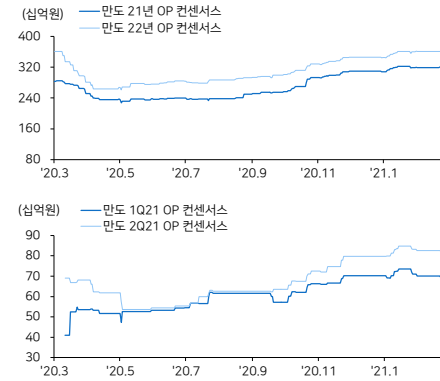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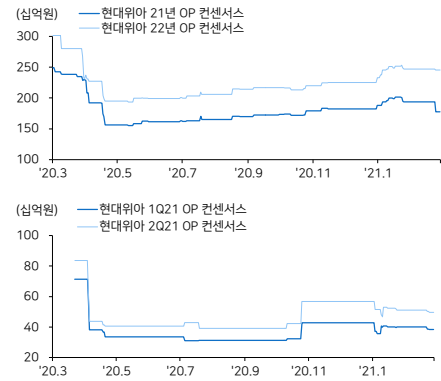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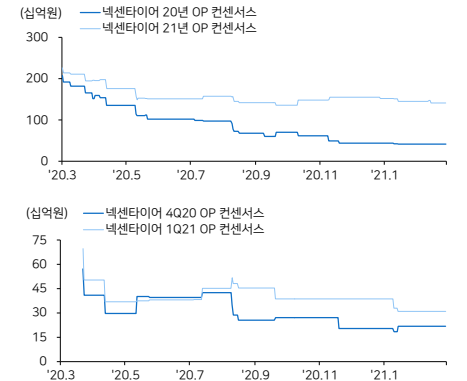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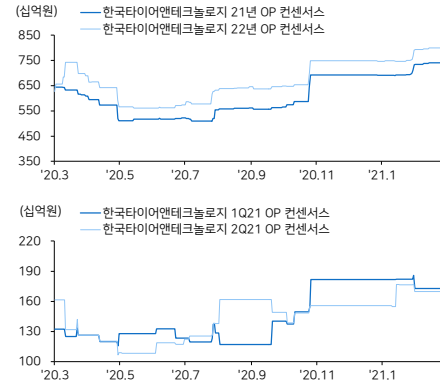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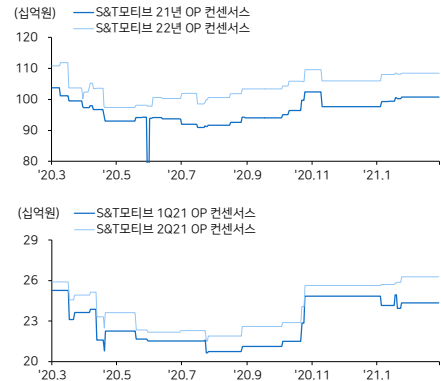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차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현대차, 프리미엄 멀티벤 '스타리아' 티저 이미지 공개 (파이낸셜뉴스)

현대차가 프리미엄 다목적 차량(MPV) 스타리아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함. 프리미엄 멀티 밴으로 맞춤형 이동수단(PBV)과 가장 유사한 공간성을 경험할 수 있는 차종이며, 볼륨있는 외관에 실내의 개방감을 극대화한 디자인이 특징.
<https://bit.ly/20FV7IG>

200만대 넘어 세계 전기차 시장...현대차 4위 '경중' (한국경제)

지난해 세계 전기차 시장이 전년 대비 34.7% 성장하며 처음으로 200만대 규모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, 제조사별로는 테슬라가 1위를 유지했고, 현대차가 4위에 올라섬.
<https://bit.ly/3cnT9vt>

폭스바겐 '전기차 배터리 데이' 연다...공급사 'LG·삼성·SK 긴장' (전자신문)

폭스바겐그룹이 이달 15일 '테슬라 배터리 데이'와 같은 '배터리 데이'를 개최한다고 밝힘.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보다는 현재 주로 쓰는 리튬이온 분야의 고도화된 기술 전력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.
<https://bit.ly/3l8gPYF>

2월 중 자동차 판매 145만대 364% ↑...11개월째 증가 (뉴시스)

2월 중국 자동차 판매 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64.8% 급증한 145만5000대, 신에너지차(NEV)는 584.7% 크게 늘어난 11만 대를 기록함. 또한 차량용반도체 공급부족의 영향은 1분기에 가장 심각하며, 2분기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.
<https://bit.ly/20h7imm>

제네시스, 올들어 북미 판매량 77% 급증 (파이낸셜뉴스)

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올해 1~2월 북미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76.8% 급증. 제네시스는 조만간 GV70 수출 판매를 시작하는 한편, 첫 전용 플랫폼 E-GMP 전기차도 연내 공개하고 해외 시장에서 외연 확장에 나섬.
<https://bit.ly/3bzPP17>

현대차·기아-한국타이어, '데이터'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한다 (전자신문)

현대·기아차가 한국타이어와 '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함. 차량 운행 및 차량 관리 등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와 기술의 교류 체계를 갖추고 서비스 고도화,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 협력을 진행할 예정.
<https://bit.ly/20F9rld>

불보 전기차 브랜드 '폴스타', 올해 한국 상륙 선언 (블로터)

불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올해 한국, 싱가포르, 홍콩, 호주, 뉴질랜드 등 5개 마켓에 신규 진출함. 폴스타는 해당 5개 마켓 외에 추가 3개의 시장 진입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총 18개 마켓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예정.
<https://bit.ly/3l8Hp3R>

쌍용차, P플랜 큰 코비 넘었다...마힌드라 자본 감사 승인 (한국경제)

쌍용차는 75%에 달하는 마힌드라의 지분을 감자를 통해 25%로 줄이고 잠재적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본 51%의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방안의 추진에 필요한 인도중앙은행의 승인을 얻음.
<https://bit.ly/3vgQ4WU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